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모두 저마다의 외로움

—다정하거나 차가운 인간관계를 생각한다—

(『「人それぞれ」がさみしい

—「やさしく・冷たい」人間関係を考える—』翻譯論文)

濟州大學校 通譯翻譯大學院

韓日科

趙 恩 智

2023年 2月



碩士學位論文

모두 저마다의 외로움

—다정하거나 차가운 인간관계를 생각한다—
(『「人それぞれ」がさみしい
—「やさしく・冷たい」人間関係を考える—』翻譯論文)

濟州大學校 通譯翻譯大學院

韓日科

趙 恩 智

2023年 2月

모두 저마다의 외로움

—다정하거나 차가운 인간관계를 생각한다—

(『「人それぞれ」がさみしい

—「やさしく・冷たい」人間関係を考える—』翻譯論文)

指導教授 坂野 慎治

趙 恩 智

이 論文을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22年 12月

趙恩智의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通譯翻譯大學院

2022年 12月

역자서문

한국은 과거 건넛집 밥순가락 숫자까지 꿰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유대관계가 끈끈한 사회였다. 하지만 지금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고독사 문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은 위기가구의 증가 등 각종 사회 문제를 안고 있다.

코로나19는 소통의 단절과 사회적 고립은 더욱 심화 되었다. 친구들과 모여 장난 놀던 교실, 대화를 나누며 근황을 전하던 점심시간, 가족이 모여 보내던 명절도 코로나로 인해 생활의 다양한 부분에서 고립이 생겨났다. 외로움은 우울함을 더욱 심화시키고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일 심화시킨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과 우울함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은 일본의 사회학자이자 와세다대학문학학술원(早稲田大学文学学術院) 교수인 이시다 미쓰노리(石田光規)의 저서로, 일본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고립, 인간관계 변화와 외로움에 대해 저술하고 있다. 저자는 일본 사회가 집단사회에서 개인화된 사회로 변하면서 발생한 외로움을 분석하고 정부와 개인이 함께 고민해야 하는 주제로 다루고 있다. 저자는 현대 사회를 ‘모두 저마다의 사회’라는 표현하며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사회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태어날 때부터 외모, 능력, 부모의 배경까지 모든 것이 달라 애초에 불평등한 출발선에 있으며 우리는 개인의 선택으로 발생한 사회의 불평등을 못 본 척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모두 저마다의 사회’는 불평등을 못 본 척하는 차가운 사회라고 말한다.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에서 제1장, 제2장, 제3장을 번역하였다.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사회 문제를 안고 있다. 인간관계의 개인화와 외로움이 사람들을 더욱 고립시켰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 책이 한국이 안고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을 위한 원인 분석 및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끝으로 이 번역 논문이 나오기까지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국문초록

제1장은 ‘모두 저마다’가 성립하는 사회의 조건이라는 타이틀로 개인화가 진행된 사회를 설명한다. 개인화가 진행된 배경, 혼자 지내기를 선택한 사람들의 생활양식, 상대를 존중하기 위해 혹은 상대를 부정하지 않기 위한 대화 기법을 설명하며 사회적인 고립이 형성되는 배경을 저술한다.

제2장은 ‘모두 저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속에 감추어진 본심은 전하지 못하는 현대의 일본 사회를 친구와의 대화, 어느 대학 수업의 토론을 예시로 들어 설명한다. 현재의 젊은 세대는 상대를 부정하지 않으며 대립을 회피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취한다. 친구와 싸움을 하게 되면 다시는 우정이 회복하지 못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젊은 세대의 외로움을 이야기한다.

제3장에서는 ‘모두 저마다’라는 표현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모녀의 대화, 친구의 진로 문제를 예시로 든다. 개인의 다양한 선택을 존중하는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자유로운 선택 속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그 결과 ‘사회적 딜레마’가 발생한다. ‘모두 저마다’라는 말로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지만 ‘모두 저마다’의 선택이 정말로 평등한 선택인가. 사회의 격차가 벌어지고 불평등이 발생하며 사람들은 외로움과 고독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모두 저마다의 사회’가 만들어내는 혹독한 현실을 전한다.

일러두기

- 외국어 고유명사(인명, 기관명, 기업명 등)는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 규정에 따라 표기하였으나, 한국에도 저명한 인물·기업명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명칭으로 표기하였다.
- 도서명은 한국에 발매된 번역도서명으로 표기하였으며 역주로 원제를 표기하였다.
- 소괄호 안에 다시 소괄호를 써야 하는 경우 바깥쪽의 괄호를 대괄호([])로 사용하였다.
- 그래프는 원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엑셀로 다시 만들어 표기하였으며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일본 내각부 및 총무성통계국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로 하였다.
- 책의 제목과 조사 명칭은 겹낫표(『 』)로 표기하였다.

목차

역자서문

국문초록

들어가며 9

모두가 달라서, 모두가 좋아

제1장 모두 저마다의 사회가 성립하는 조건

1. 개인화가 진행된 사회 10

자유롭게 여러 일을 할 수 있게 된 사회

개인화와 모두 저마다

2. 혼자가 되는 조건 1: 물질 풍요의 획득 11

집단적 사회

경제 성장과 물질의 충족

상품·서비스와 사회보장에 좌우되는 생활 유지

3. 혼자가 되는 조건 2: 개인을 중시하는 사상 13

인권 사상과 자유주의

개성과 다양성의 존중

사라져가는 전형적인 라이프 코스

개인화와 모두 저마다의 사회

4. 개인을 존중하는 사회와 모두 저마다의 사회 17

현시대는 개인을 존중하는 사회인가?

상대를 부정하지 않는 기법의 발달

- 서로를 지나치게 배려하는 관계
- 서로 배려하고 대립을 회피하는 사회

제2장 모두 저마다 속에서 멀어져가는 본심

1. 어떤 대화로부터 22
2. 편안함과 불안 사이에서 23
 - 무리해서 사람과 어울리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 유대관계에 쏟아붓는 감정
 - 감정이 더해진 불안정한 유대관계
3. 편리해진 모두 저마다의 커뮤니케이션 26
 - 대립을 회피하는 사회
 - 다소 자신의 의견을 굽히더라도 친구와의 다툼은 피하고 싶다
4. 멀어지는 인간관계와 막연한 외로움 30
 - 상대와 거리를 두는 모두 저마다의 사회
 - 높아지는 고립의 불안
 - 외로운 일본
5. 우정이야기로 외로움을 해소하는 사회 36
 - 친구와 다투면 우정은 회복되지 않는다
 - 픽션 속 우정이야기
 - 외로움의 해소

제3장 모두 저마다의 사회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1. 선택에 제한이 생기는 사회 39
 - 어느 모녀의 이야기

친구의 진로 이야기	
2. 다양한 선택지의 함정	41
개인의 선택을 인정하는 사회의 포용력	
자유로운 선택은 좋은 걸까	
사회적 딜레마의 발생	
3. 모두 저마다의 사회에서 생겨나는 답답함	44
혼자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소망	
조율이 필요한 시대	
피할 수 없는 타인의 영향	
4. 선택으로 벌어지는 사회의 격차	47
선택의 조건과 결과는 평등하지 않다	
사람들의 결혼 희망은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	
생애미혼율로 보는 자유로운 선택의 결말	
5. 불평등을 못 본 체하는 차가운 사회	51
고독·고립을 문제시 삼는 건 불필요한 도움이다	
훌륭한 업적을 일군 사람이 집필하는 고독·고립 추장 연설	
가성비화 되는 인간관계	
모두 저마다의 사회의 흑독함	
참고문헌	56
日本語抄録	57

들어가며

모두가 달라서, 모두가 좋아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제법 많으실 겁니다. 이 말은 가네코 미스즈(金子みすず) 씨의 ‘나와 작은 새와 방울과’라는 시 속에 나옵니다. 일반적으로는 세상의 다양한 존재를 받아들이는 따뜻한 시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같은 건 없고 그렇기에 모두가 훌륭하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최근 ‘다양성’이라는 단어를 자주 듣습니다. 영어로 다이버시티(diversity)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 단어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차이를 인식하고 인정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엔이 제창한 SDGs(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실현하는 한 가지 축으로써도 ‘다양성’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두 저마다’는 어떻습니까. 이 표현은 ‘다양성’ 이상으로 접하는 기회가 많으실 겁니다. 제 주변에서도 ‘모두 저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두 저마다’라는 말에도 ‘모두가 달라서, 모두가 좋아’ 혹은 ‘다양성’과 같은 각각의 차이를 존중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친구와 진학 얘기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때 ‘모두 저마다 다르니까’라는 말을 듣는다면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듣고 ‘받아들여 주었다’고 기쁨을 느끼기보다 버려진 듯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겁니다. ‘모두 저마다’라는 표현에는 언뜻 상대에게 받아들여진 듯해도 거리를 두는 듯한 복잡한 어감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런 ‘모두 저마다’가 넘쳐나는 사회를 다룹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두 저마다’라고 말하며 상대와의 거리를 잘 유지하려는 인간관계의 모습과 ‘모두 저마다’의 사회에 가려진 답답함, 문제 등을 다룹니다. 본서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와 사회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1장 모두 저마다의 사회가 성립하는 조건

1. 개인화가 진행된 사회

자유롭게 여러 일을 할 수 있게 된 사회

집단생활은 숨이 막혀 어쩐지 힘이 든다. 이러한 생각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폐쇄적이고 구속력이 강한 집단은 ‘촌락 사회’라고도 불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식인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집단적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왔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일본 사회의 집단적 체질’이라고 들었을 때 좋은 인상을 받는 사람은 그다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지금의 사회를 보면 사람들은 자유로운 생활을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돈이라는 제약이 없다면 쉬는 날에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먹을지, 어디에 갈지 무엇이든 자유롭습니다. 진로나 가족 구성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두 저마다’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두 저마다’의 사회는 그리 간단하게는 실현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집단적 체질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집단 속에 파묻힌 생활에는 아무래도 집단의 규칙에 맞춰 생활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화와 모두 저마다

사회의 다양한 단위가 집단에서 개인 중심으로의 변화를 사회학에서는 ‘개인화’라고 말합니다. 울리히 벡(Ulrich Beck)이라는 사회학자가 1980년대에 제창했습니다. 개인화에는 공유(共有)에서 사유(私有)라는 물질 측면의 개인화와 개인의 의견 존중 등으로 대표되는 사상적 측면의 개인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1990

년대 후반부터 개인화가 진행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모두 저마다’라는 말이 침투한 사회는 개인화가 진행된 사회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의논의 시작으로 ‘모두 저마다의 사회’가 성립된 조건부터 살펴봅시다.

2. 혼자가 되는 조건 1: 물질 풍요의 획득

집단적 체질에서 벗어나 ‘혼자’가 되기 위해서는 물질 혹은 사상적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먼저 각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집단적 사회

물질 조건은 물질적 풍요로 달성됩니다. 물건의 부족을 공유로 충당해왔던 시대에는 집단에서 빠져나와 혼자가 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농촌에서는 길, 하천, 숲 등 모든 것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공동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협력함으로써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왔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집단 규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규칙을 어기는 행위는 다른 이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집단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물질적 풍요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혼자 지낼 수 있을 정도의 풍요로움은 그리 쉽게 얻지는 못합니다. 일본인 다수가 독신생활을 즐기게 된 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고도 경제성장기부터입니다. 그전까지의 일본은 농업인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촌사회였습니다. 70년 정도 전까지 일본은 집단적 성격이 상당히 강한 사회였습니다.

경제 성장과 물질의 충족

1960~70년대에 들어서자 경제 성장과 함께 가족 모임의 장이었던 거실이 가정에서 사라져갑니다. 이를 대신하여 각 주택에는 개인 방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본 사회가 ‘소비사회’라고 불리게 된 것도 1970년대 무렵부터입니다.

1970년대 후반에는 각 방에 TV를 설치하게 되었고,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에 들어서자 각 방에는 개별 에어컨까지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는 컴퓨터, 핸드폰과 같은 정보통신기기가 폭발적으로 보급되었습니다.

일본 총무성의 『통신 이용 동향 조사』에 따르면 2018년에는 79.2%의 사람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며 46.1%의 사람이 기존의 휴대전화를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술 진보의 결과로 우리는 쾌적한 개인 방에서 정보 기기를 구사하면서 신체적으로 접촉하지 않으면서도 외부 사람이나 장소와 연결되는 자유를 손에 얻었습니다.

상품·서비스와 사회보장에 좌우되는 생활 유지

물적 풍요로움은 우리의 생활에 있어 물품의 대차 절차, 관리 방법의 결정과 같은 다양한 조정 비용을 덜어줍니다. TV가 여러 대 있으면 채널 다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저마다’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기계 기술이 진보함으로써 지금까지 공동으로 해야만 했던 일도 혼자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생활 서비스가 충족되면서 기계에 의존할 수 없는 행위도 돈으로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자산을 갖고 통신 환경을 갖춘다면 사람과 만나지 않는 생활도 가능합니다.

일정한 자산을 갖지 않은 사람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도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은 있지만, 꾸준히 보완·정비되어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폐쇄적인 집단에 동화 및 매몰되면서 생활을 유지했던 촌락 사회 시대와는 다릅니다. 우리 생활은 가까운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돈을 사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상품, 서비스와 행정적 사회보장에 좌우되고 있습니다.

3. 혼자가 되는 조건 2: 개인을 중시하는 사상

인권 사상과 자유주의

또 한편 사상적 조건으로는 ‘혼자’ 혹은 ‘개인’의 생활을 지지하는 사고방식의 확산입니다. 대표적으로 인권사상과 자유주의 사상을 들 수 있습니다.

애초에 신분제도와 투쟁을 목적으로 한 인권운동은 유럽, 미국을 중심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인권사상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8년에 ‘세계인권선언’이라는 형태로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앞서 ‘들어가며’에서 소개한 다양성 이야기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또한, 자유주의 사상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를 제한 없이 존중한다며 제창했습니다. 그래서 인권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사상도 유럽에 기원을 갖고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이 1859년 출판한 ‘자유론’이 유명합니다. 우리의 헌법이 보장하는 다양한 ‘자유’도 이러한 사상을 배경에 두고 있습니다.

개성과 다양성의 존중

사람들의 주의, 신조, 행위를 존중하는 사고방식은 학교 현장에서는 개성의 존중이라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물적으로 풍요로워진 1985년에는 임시교육심의회 제1차 답신(答申)에서 ‘개성 중시의 원칙’이 강조됐습니다.

이 시절에는 국제경쟁이 심해지고 집단 괴롭힘도 빈발하며 획일적인 일본 교육에 따가운 시선이 쏟아졌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개인의 개성을 살리는 일’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개성의 존중은 그 후 우리 사회에 공통적인 가치관으로 중요시됐습니다. 진로 지도는 교원 측의 일방적인 지도가 아닌, 아동, 학생 개인의 ‘하고 싶은 일’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주목은 교육의 현장만이 아닙니다. 1980년대에는 ‘자아 찾기’가 하나의 유행이 됩니다.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을 중시하게 된다면 집단 구속력은 필연적으로 약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들은 집단의 의향을 중요시하지 않고 개인의 ‘하고 싶은 일’을 우선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적으로도 사상적으로도 ‘혼자’ 지낼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자 개성 존중 흐름에 다양성 존중 흐름도 더해졌습니다. 이 흐름과 함께 지금까지 소수자(minority)라고 불리었던 사람들의 권리를 되찾으려는 의식이 높아졌습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성향도 ‘다양한 성향 속의 한가지’로써 받아들여지게 되어갑니다. 다양성 존중의 흐름은 2000년대 이전에도 있었지만, 일본 사회에서 명확히 의식되기 시작한 건 2000년대 이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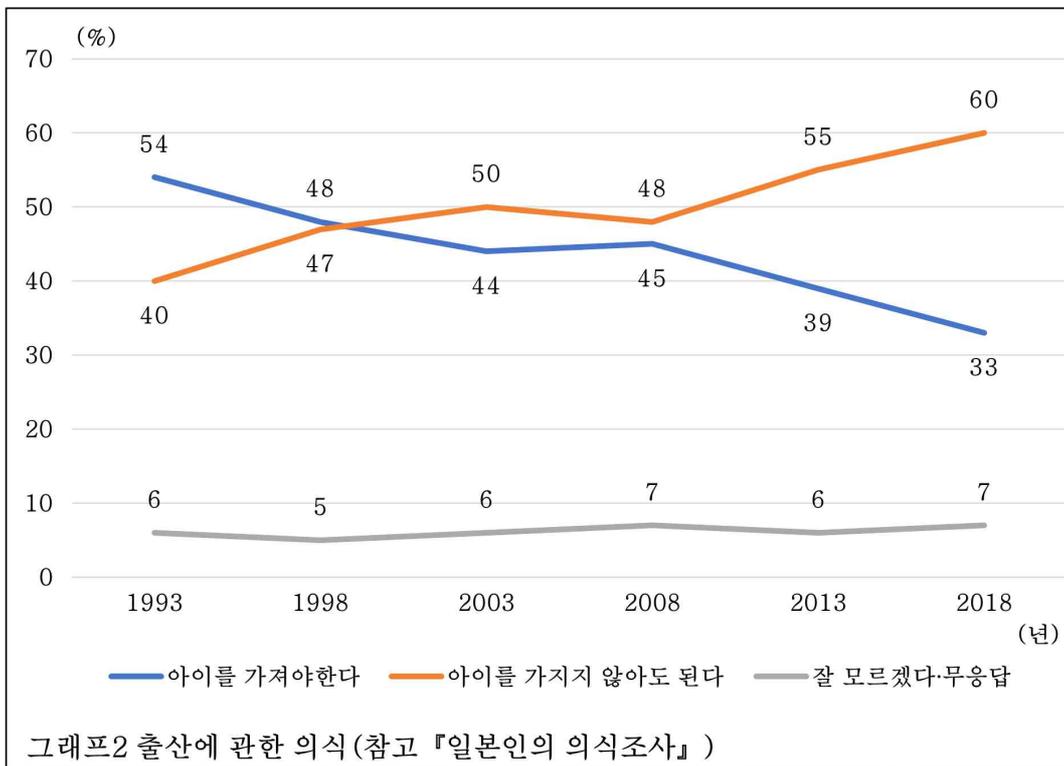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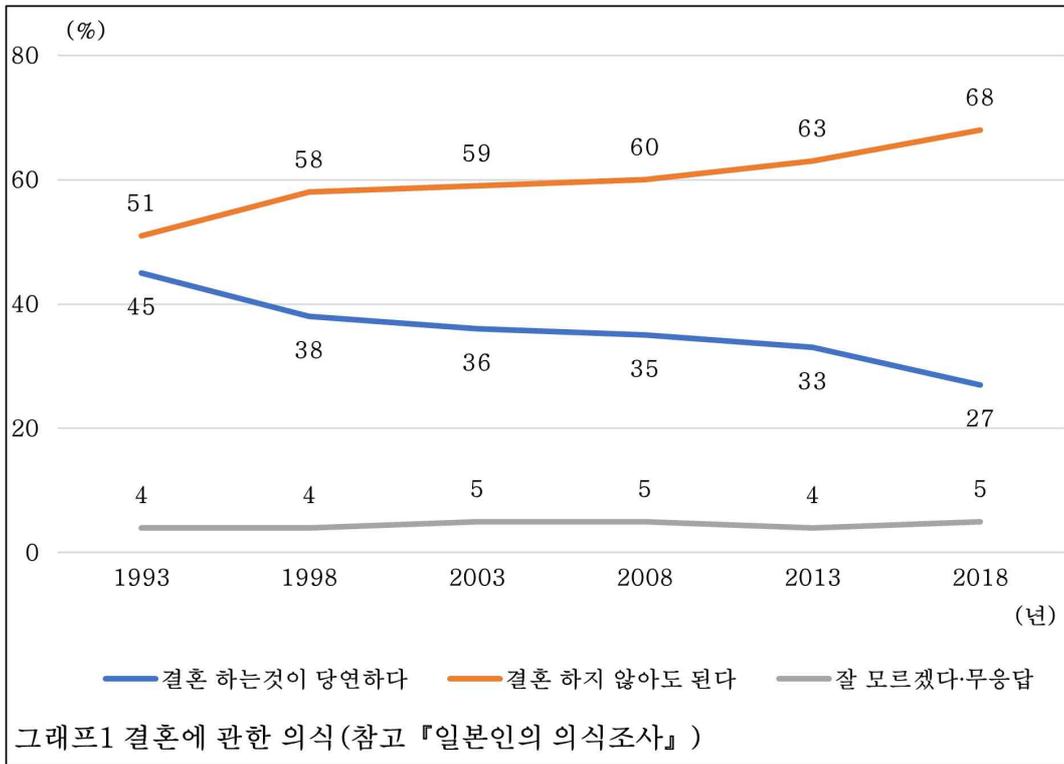
사라져가는 전형적인 라이프 코스

그 배경에는 사회의 변화도 있습니다. 농촌사회에서 벗어난 우리는 물적으로 풍요로워지지만, 곧바로 개인 단위의 생활로 변화한 것은 아닙니다. 농촌사회 이후의 일본은 가족과 사회라는 집단을 중심으로 사회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성장도 있어 일본 사회의 집단적 체질은 때로는 칭찬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가족과 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 사회는 1990년대 초반까지 ‘전형적인 라이프 코스’와 같은 것이 존재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이라면 학교 졸업 후에 취업하고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결혼하고 아이를 갖고 가장으로써 바깥일에 매진하게 됩니다. 한편 여성이라면 이른바 일반 사무직에 취업하고 얼마 동안 일한 후에 결혼하여 아이가 태어나면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라이프 코스의 실현은 1990년대 후반부터 어려워졌습니다. 50세 시점에서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50세시미혼율¹⁾’은 남성은 1990년대, 여성은 2000년대에 급상승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결혼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애초에 결혼과 가족의 방식 자체도 다양해졌습니다.

1) 역주. 전체 인구 가운데 50세 전후까지 결혼한 적이 없는 사람 비율로 한국의 생애미혼율에 해당함.



그래프 1과 그래프 2는 결혼과 출산에 관한 인식을 계속해서 조사해온 『일본인 인식 조사』(NHK방송문화연구소)의 결과입니다. 결혼에 대해서는 ‘결혼하는 게 당연하다’와 ‘반드시 결혼할 필요는 없다’라는 선택지에서, 출산은 ‘결혼한다면 아이를 가져야 한다’와 ‘결혼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선택지에서 고르는 방식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결혼에 대해서도 출산에 대해서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993년부터 대개 우하향하며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평생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종신고용이나 남편은 바깥일을 하고 아내는 집을 지켜야 한다는 성별 역할 분업도 지금은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 오늘날의 전업주부 세대는 일본 사회의 가장 보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1990년대 후반 법 개정으로 파견사원이 늘어남에 따라 종신고용 체제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애당초 하나의 기업에 계속해서 일하려는 의식도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사회로부터 ‘표준’으로 여겨지던 라이프 코스가 사라지면 우리는 마지못해 자신들의 인생을 스스로 설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가령 ‘하고 싶은 일’이 명확하든 명확하지 않든 각자의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인생을 설계해나가야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일찍부터 커리어 플랜을 세우도록 장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병행해서 선택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 폭도 넓어집니다. 옷차림, 식사, 하루를 보내는 방법 등 우리들의 일상생활은 선택의 기회가 넘쳐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개인과 개성에 대한 주목은 한층 더 커집니다. 그 이유는 선택의 배경에는 개인의 의사가 작용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장 보드리야르²⁾는 이와 같은 사회를 일상생활이 심미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로 ‘일상생활의 심미화’라고 부릅니다.

2) 역주. Jean Baudrillard, 1929-2007, 프랑스 철학자·사회학자.

개인화와 모두 저마다의 사회

여기까지 서술해온 개인화된 사회와 혼자서 지내는 사회는 ‘모두 저마다’라는 말과 강한 친화성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우리는 단순히 사물의 소유뿐만 아니라 어떠한 것을 소유할지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무엇을 선택하는지는 사람마다 자유롭게 고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의 폭이 넓어져 어떠한 인생을 걸어갈지도 사람마다 달라졌습니다. 어떠한 가족을 만들지, 애초에 가족을 만들지, 안 만들지, 또 무슨 직업을 가질지도 각자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혼자 지내면서 사람과 어울리는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회사의 친목 모임이나 대학교 술자리 참여 여부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지금은 강요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혼자 지내는가 아니면 대인관계를 맺는가도 모두 개인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4. 개인을 존중하는 사회와 모두 저마다의 사회

현시대는 개인을 존중하는 사회인가?

그렇다면 지금의 사회는 ‘개인을 존중하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속력이 강한 폐쇄적인 집단을 벗어나 ‘혼자’가 되기를 선택한 속내에는 집단이 아닌 개인으로 존중받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이전 사회보다 다양한 주의와 신념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성적 성향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성적 소수자를 의미하는 ‘LGBTQ³⁾’라는 말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았겠지요.

3) 역주. 성소수자 중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 퀴어(Queer)를 합하여 부르는 단어.

1980년대였다면 결혼을 하지 않은 인생을 관찰하는 건 상당히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 ‘제 앞가림도 못 한다.’라는 혹독한 말을 하거나, 승진에 차별을 두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개인을 존중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되었느냐고 하면 그렇지도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 친구라 하더라도 신경이 쓰여서 좀처럼 깊은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던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회사에서 관리직을 맡은 사람이라면 ‘지금은 뭐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어 부하직원과 어떻게 지내야 좋을지 모르겠다.’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개인을 존중하는 사회’라는 건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독립된 의견을 솔직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사회라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배려하면서도 솔직하게 의견을 주고받음으로써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간다. 이러한 대화를 나누는 사회를 목표로 해왔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회는 실현됐을까요. 일본 사회를 바라보면 실제로 도래한 건 눈 앞의 타인에 대한 의견이나 비판을 꺼리고 모두가 자기만의 틀에 갇힌 사회, 혹은 검색을 통해서 서로 의견이 일치하는 사람끼리 관계를 맺고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은 가까이하지 않으려는 분단형 사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을 존중하는 자세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걸까요. 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열쇠로 본서는 ‘모두 저마다’라는 말에 착안했습니다.

상대를 부정하지 않는 기법의 발달

개인화와 ‘모두 저마다’라는 말에 강한 친화성이 있듯이 ‘모두 저마다의 사회’와 ‘개인을 존중하는 사회’는 실은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을 존중’했을 때, ‘모두 저마다’라는 말에 빠지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살펴봅시다.

‘개인을 존중하는 사회’란 개인의 선택이나 결정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혼자 지내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생활 여러 방면에서 개인의 희망과 선택이 특히 존중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집단이 아닌 자기 의사에 따라 어떠한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에서는 이른바 ‘당연론’을 사용해서 상대의 행위나 주의, 신조에 반론을 제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성이라면 이래야 한다’, ‘부하직원이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 와 같은 식의 어떤 기준을 갖고 타인에게 의견을 말하기 점차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도 떠오르는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타인이 표출한 의견이나 행동은 일단 수용하는 것이 개인을 존중하는 사회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희망이나 선택이 중요시된다면 누군가의 희망이나 선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좀처럼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이유는 상대의 생각을 부정하는 행위는 ‘상대의 생각이나 행동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생각이나 행동을 부정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서로를 지나치게 배려하는 관계

이러한 경향은 젊은 세대의 친구 관계에서 더욱 드러납니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부터 친구와 깊은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고 서로 상처를 입히지 않으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일에 중점을 두는 친구 관계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도이 다카요시(土井隆義) 씨는 이러한 친구 관계를 서로의 감정에만 의존하고 상대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지나치게 배려하는 관계라고 표현했습니다.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를 부정하지 않으려는 혹은 상처 주지 않으려는 커뮤니케이션의 기법이 유효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명확한 부정 표현이나 상처 주는 표현을 삼가고 ‘당연론’은 꺼리는 등의 예방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를 부정하는가, 하지 않는가의 판정은 커뮤니케이션에서 애매한 영역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표현에 대한 부정 판정은 결국 표현된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이는 상대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로부터 진료에 대한 고민을 들었다고 합시다. 이때 친구의 진료

선택에 대해서 그다지 좋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이를 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상대가 자신이 부정당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 간단한 예를 들면 상대를 칭찬하려 했는데 반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매우 난처한 과제를 들이킵니다.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의 정답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상대의 감정을 해치는 표현을 피하면서 그 자리를 원만하게 지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자리에서 유용한 것이 ‘모두 저마다’와 같은 표현, 혹은 그런 태도입니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말은 상대의 의향을 해치지 않으면서 상대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난제에 대한 정답을 제공해줍니다.

상대의 생각에 위화감을 느낀다고 해도 사람마다 다르니까 라고 말하면 어떻게든 대답은 피할 수 있고 그 자리를 어물쩍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당연론’으로 규범을 강요하는 사람보다는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선호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자리를 원만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대답을 회피하는 사회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는 서로의 주의·주장을, 비판도 포함해 서슴없이 말할 수 있는 ‘개인을 존중하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계는 주의·주장을 말하는 것보다도 대답을 회피하기 위해서 타인에 대한 비판이나 의견을 꺼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일에 무게를 두는 사회로 보입니다.

대답을 회피하기 위해서 타인에 대한 비판이나 의견을 꺼리고 서로 배려하는 일에 무게를 두는 사회를 ‘모두 저마다의 사회’라고 합시다. 본서에서는 이 ‘모두 저마다의 사회’에 초점을 맞추고 가까운 인간관계와 사회에 대해서 고찰했습니다.

제2장, 제3장에서는 ‘모두 저마다의 사회’가 친근한 사람과의 인연을 어떻게 바꿨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제4장, 제5장은 조금 더 넓은 사회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양한 일들이 사람마다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모든 행동이 ‘모두 저마다’라는 식의 표현으로 용납되는

건 아닙니다. 앞서 서술했듯이 ‘모두 저마다의 사회’는 부정에 민감한 사회이기도 합니다. 부정에 민감한 사회는 말에 신중한 사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4장에서는 ‘모두 저마다의 사회’에서의 위축(萎縮)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모두 저마다의 사회’에서 위축되는 사람이 있는 한편, 상대를 부정하는 말을 피하려 해도 잘 안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부정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5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생겨나는 사회 분단에 대해서 다룹니다.

제2장 모두 저마다 속에서 멀어져가는 본심

1. 어떤 대화로부터

세련된 카페에서 두 사람의 여성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친구처럼 보였습니다.

“나, 이대로 결혼 안 하고 살까 봐.”

“음, 왜?”

“그냥 결혼이란 숨 막히고, 이대로 혼자 지내는 게 편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구나, 사람마다 다르니까.”

다음으로 어느 대학의 수업을 들여다봅시다. 토론 형식의 수업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는 온라인 환경을 규제하는 편이 좋은가?>입니다. 그룹으로 나뉘서 10분 동안 의논해주세요.”

교원의 목소리와 함께 학생이 귀찮다는 듯한 얼굴을 하며 이동한다.

“온라인 규제래, 어떡할까?”

“어떡하지.”

“강제나 제한이라기보다 사람마다 다르지 않아?”

“응, 그렇긴 해.”

여러분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곧잘 사람마다 다르다는 말을 한 적이 없으십니까? 여기 예시를 든 회화는 요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어느 정도 얼굴을 알고 있는 관계 속에서 전개되는 ‘모두 저마다’의 커뮤니케이션에 주목하겠습니다.

2. 편안함과 불안 사이에서

무리해서 사람과 어울리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혼자’ 지내는 조건이 형성되면서 사람들의 선택과 결정이 존중받게 된 사회에서는 다양한 일을 하지 않고도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사회의 규범은 느슨해졌고 무언가에 대한 행동 결정은 개인에게 맡겨졌습니다.

이 경향은 인간관계에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폐쇄적인 집단에 동화·매몰되며 생활을 유지해온 촌락 사회의 시대와는 다릅니다. 생활의 유지는 가까운 인간관계가 아니라 돈을 사용해서 얻은 상품이나 서비스와 사회보장제도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에서는 누군가와 어울려야만 한다고 강요되는 일이 점차 줄어듭니다. 이제 회사나 학교의 친목 모임 참여를 강요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역 자치회에 대한 가입도 자발성이 강해졌습니다. 취미 서클 활동을 계속할지 그만둘지는 그야말로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누군가와 어울리는가 혹은 어울리지 않는가는 개인의 판단으로 결정됩니다. 속되게 말해 우리는 (싫은) 사람과 무리하게 친하게 지내지 않아도 된다는 편안함을 손에 넣었습니다.

지금은 생활 유지의 필요성에서 사람과 사람이 가깝게 지내는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접착제가 점차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유대관계에 쏟아붓는 감정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에서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생활 유지의 필요성이라는 사람과 사람을 견고히 이어주었던 접착제는 약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눈앞의 관계를 이어주는 접착제를 새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해진 관계를 이어주는 새로운 보강제로써 유대관계에 대

량의 ‘감정’을 쏟아붓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미디어로부터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영화계의 거장 오즈 야스지로(小津安二郎) 감독의 작품 중에 『나가야 신사록(長屋紳士録)』이라는 짧은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종전부터 2년 후인 1947년에 공개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도쿄 상공업지구(東京下町)를 무대로 한 휴먼 드라마로 평가받았습니다. 간단하게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주요 등장인물은 나가야⁴⁾의 주민과 소년입니다. 이야기는 나가야에 사는 여성이 친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를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그때 나가야의 또 다른 주민과 딸뻥이 생기지만 결국 여성이 소년을 돌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돌보기 싫어하던 여성도 점차 정이 붙어 아이를 귀여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윽고 아이를 찾고 있던 친부모가 등장하여 여성과 아이 사이에 이별이 찾아옵니다. 아이가 떠난 후, 여성은 부모와 자식의 각별한 인연을 깨닫는다는 것이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나가야의 주민은 열쇠도 걸지 않고 서로의 집에 종종 왕래하며 수시로 잡담을 나눕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이나 나가야 주민끼리의 밀접한 교류. 이러한 표현들로부터 ‘예부터 변함없는 따뜻한 유대관계’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이 본다면 이 영화에 대해서 상당한 위화감을 품겠지요. 그 이유는 등장하는 사람들의 소극적인 감정적 교류에 있습니다.

휴먼 드라마인 이 영화 속에서 스킨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장면은 소년이 여성의 어깨를 두드리는 장면 외에 전혀 없습니다. 소극적인 감정적 교류는 친부모와 아이의 재회 장면에서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인 부모·자식의 재회 및 소년과 여성의 이별을 오늘날의 시각으로 재현한다면 필시 감동적으로 연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가야 신사록』에서는 그러한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재회한 부모 자식은 서로 달려드는 것도, 끌어안는 일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는 가까이 다가오는 아이를 손으로 밀어서 먼저 여성에게 사과와 감사 인사를 하게 시킵니다. 예의를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4) 역주. 일본식 연립주택의 일종으로 여러 세대가 나란히 이어져 있으며 외벽을 공유하는 식의 건 하나의 건물. 건물을 수평으로 구분하고 각 세대에 출입문을 만든 형식의 주택.

아이와 여성의 이별 장면에서도 눈물이나 포옹은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소년이 ‘아주머니 안녕히 계세요’라고 무뚝뚝하게 말하며 이별의 장면이 끝납니다. 여기에서 ‘휴먼 드라마’라고 불린 영화에서조차 감정 표현이 매우 적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본 학생은 ‘옛날에는 유대관계는 깊었지만 감정 표현이나 배려하는 마음이 적고, 지금의 유대관계는 약하지만 감정 표현이나 배려하는 마음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감정에 충만한 지금의 인간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더해진 불안정한 유대관계

그러나 감정이 더해진 유대관계가 그다지 끈끈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상대와의 인연이 ‘좋다’고 생각한다면 관계를 지속하고, ‘나쁘다’는 생각이 들면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그 특성 때문에 우리는 무리해서 사람과 사귀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을 손에 넣었습니다. 불합리한 요구나 차별적 대우를 쉽게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무리하게 사귀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은 인연으로부터 멀어지는 불안도 가져왔습니다.

서로에게 좋다고 생각되어 이어가는 관계는 어느 쪽이 혹은 양측이 나쁘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관계는 끊어질 리스크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왕래가 있는 나가야의 주민들과는 다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좋은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즉 인연 속에 좋은 감정을 계속해서 부어 나가야 합니다.

이 특성은 그 사람에게 있어 소중한 인연일수록 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소중한 인연일수록 놓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인연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의 감정도 좋은 상태로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소중한 상대와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관계에서 마이너스 요소를 철저히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심리에 따라 결정되는 좋은 상황은 사회에 공유되는 규범만큼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사회의 규칙은 좀처럼 바뀌지 않지만 개인의 감정은 날마

다 변하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문득 나쁜 감정으로 돌아서 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즉 사람과 무리해서 어울리지 않아도 되는 관계는 사소한 일로 끊기기도 하는 불안정한 인연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눈앞의 유대관계를 안정시키는 정답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입문서가 서점에 늘어서 있고 ‘커뮤력5)’이나 ‘커뮤 장애6)’와 같은 용어가 유행하는 상황은 커뮤니케이션에 관련한 사람들의 불안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나가는 행동 양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상대 심리를 고려하면서 커뮤니케이션하는 성가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3. 편리해진 모두 저마다의 커뮤니케이션

대립을 회피하는 사회

이러한 성가신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편리한 건 ‘모두 저마다’를 전제로 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 상대의 의견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사람마다 다르다고 해석함으로써 대립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혹은 상대의 행동이 자신에게 있어 이해되지 않더라도 모두가 다르다는 말로 문제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의 서두에서 예시로 들었던 대화들을 다시 돌이켜봅시다. 여기서 혼자가 편하다고 말하는 친구에 대해서 ‘혼자 지낸다니 외롭지 않아? 결혼하는 편이 좋아.’라고 대답하는 건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추천하는 말은 혼자 지낸다는 친구의 결단을 해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의 결단을 해치는 행위는 상대 의사 존중이라는 의미에서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5) 역주.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줄임말. 사람과의 대화나 의사소통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 정도를 의미함.

6) 역주. 커뮤니케이션 장애의 줄임말.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결점이나 어려움이 있어 원활한 인간관계 구축에 곤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함.

해서 위로하는 것도 친구를 알아보는 듯한 인상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 ‘모두 저마다’로 적당히 둘러두면 일단 풍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솔직하게 생각을 말할 때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의 존중을 전제로 한 ‘모두 저마다의 사회’에서는 상대를 부정하지 않는 것에 더해 자기 생각을 밀어붙이지 않는 것도 요구됩니다. 각각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회에서는 의견을 밀어붙이지 않고 각자의 생각을 두루뭉술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가령 자신은 온라인을 제한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더라도 이를 표명하면 자신의 의견을 밀어붙이는 모양새가 됩니다. ‘모두 저마다’의 커뮤니케이션은 이와 같은 때에도 편리합니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말을 사용한다면 자신의 의견을 유지하면서 상대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안정한 인연 속을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저마다’라는 말을 사용하여 서로의 의견 다툼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의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소 자신의 의견을 굽히더라도 친구와의 다툼은 피하고 싶다

사람들의 심리적인 발달을 연구한 에릭 에리슨⁷⁾은 청년기에 맺는 친구 관계의 중요성을 지적했습니다. 그가 가정한 친구 관계는 서로의 내면을 속속들이 드러내어 솔직하게 의견을 나누는 교제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성은 자아를 확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제1장에서도 다뤘듯이 1980년대 후반 정도부터 젊은 세대의 친구 관계의 변화가 지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친구와 깊은 관계를 맺지 않고 서로 상처를 주지 않으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일에 중점을 두는 인간관계로 변했습니다.

니가타현(新潟県)의 4년제 대학에 다니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오카다 쓰토무(岡田 努) 씨는 젊은 세대의 친구 관계 특성으로 ‘배려’, ‘교류 회피’, ‘무리’라는 세 가지 성향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려란 상대를 배려하고 서로

7) 역주. Erik Homburger Erikson, 1902-1994, 독일 출신의 미국 심리학자.

상처 주지 않도록 마음을 쓰는 성향, 교류 회피는 친구와 깊은 관계를 피해서 서로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성향, 무리는 분위기 등 집단의 표면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성향입니다. 이들은 변화했다고 전해지는 친구 관계의 특성과 일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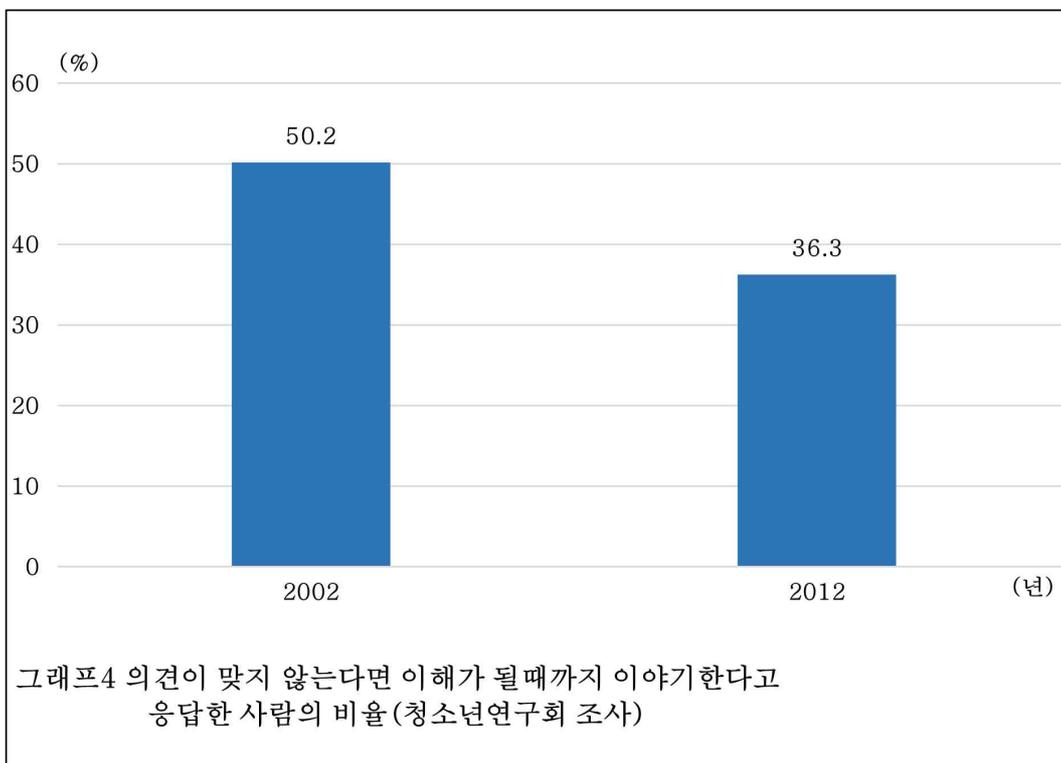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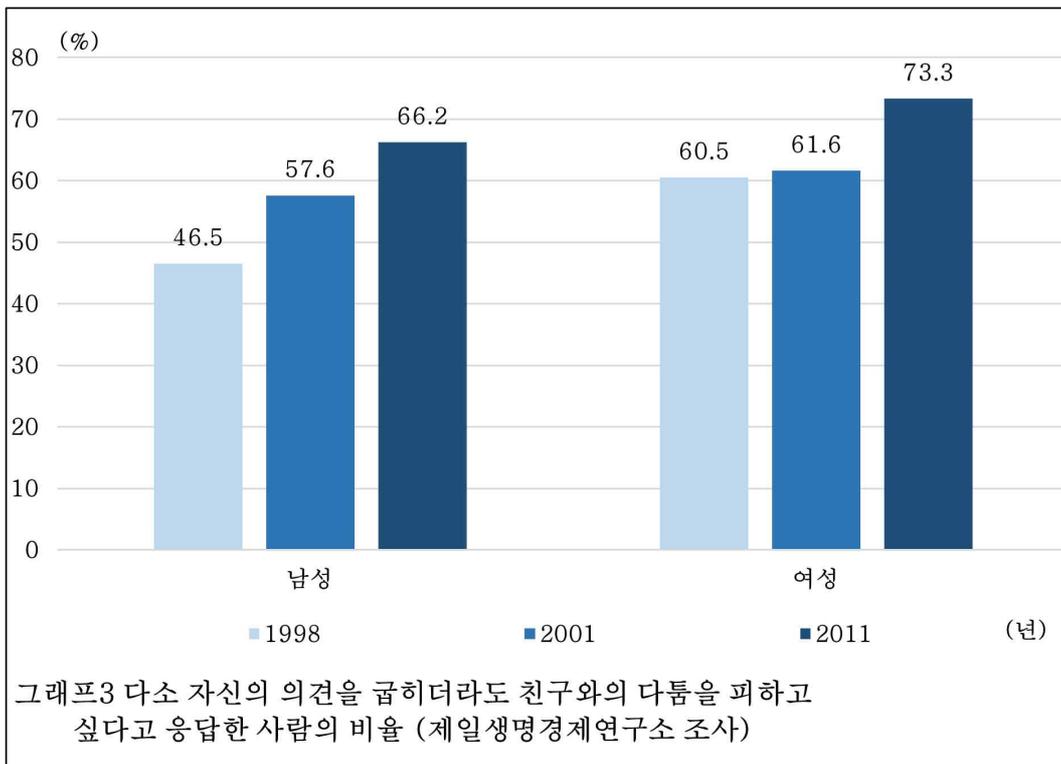
비슷한 경향은 다른 데이터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 3과 4는 제일생명경제연구소와 청소년연구회가 각각 16~29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입니다. 두 가지 조사는 모두 계속 조사로 의식 변화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일생명경제연구소의 조사는 ‘다소 자신의 의견을 굽히더라도 친구와의 다툼을 피하고 싶다.’ 문항에 대해, 청소년연구회의 조사는 친구와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이해가 될 때까지 이야기한다.’ 문항에 대해, 어느 쪽도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다소 자신의 의견을 굽히더라도 친구와의 다툼을 피하고 싶다.’에 대해서 1998년에는 남성 46.5%, 여성 60.5%가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응답했습니다. 이 수치는 2011년이 되자 남성 66.2%, 여성 73.3%까지 증가했습니다. 한편 친구와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이해가 될 때까지 이야기한다.’에 응답한 사람은 2002년 50.2%에서 2012년 36.3%까지 줄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굽히더라도 친구와의 다툼을 회피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었고 만약 의견이 맞지 않더라도 친구와 이해가 될 때까지 이야기한다는 사람이 줄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모두 저마다’의 커뮤니케이션이 횡행하는 사회의 실상을 잘 나타냅니다. 개인을 존중하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접착제가 약해진 사회에서는 다툼이나 대립은 관계의 존속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연을 이어가고 싶은 상대에 대해서 필사적으로 대립을 회피하기 위해 항상 주의합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싸움이나 대립을 피하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싸움이나 대립을 피하고자 할 때 유효한 건 ‘모두 저마다’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모두 저마다’의 커뮤니케이션은 대립을 표면화시키지 않고 진정시키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의견이 대립이나 갈등으로 발전하기 전에 사람마다 다르다는 말로 서로의 간섭을 꺼리고 있습니다.



4. 멀어지는 인간관계와 막연한 외로움

상대와 거리를 두는 모두 저마다의 사회

그렇다면 각각의 행위나 주장을 ‘모두 저마다’와 같은 말로 받아들이는 사회는 따뜻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행위나 주장을 제각각 받아들이는 사회에서 이러한 말들은 내뱉어진 순간부터 대화의 기회를 가로막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대화하고 있는 상대의 결정이나 선택에 위화감이나 불만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다툼이나 대립을 관계의 존속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위화감이나 불만은 ‘모두 저마다’라는 말로 가려집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 생겨나는 위화감이나 불만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상대의 심리를 헤아릴 수 없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어설픈 화제를 파고들면 대립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사람마다 다르다는 식의 대화를 이어가 그 자리를 무난히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이러한 행동의 축적 결과 ‘모두 저마다의 사회’로 주고받는 대화는 딱히 거슬릴 일이 없는 형식적인 대화에 그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사회에서는 공감을 얻기도 어려워집니다. 어떤 사람이 어떠한 의견에 공감해 주기를 바란다고 가정합시다. 여기서 사람마다 다르다는 말이 등장하면 더 이상의 깊은 대화를 나누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들에 왠지 모르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서두에서 다뤘던 여성은 어쩌면 결혼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다르다는 말에 그 이상의 깊은 대화를 나누는 건 어려워집니다. 토론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말 뒤에 그다지 의논은 깊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두 저마다’와 같은 표현은 얼핏 듣기에 상대를 수용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들은 서로에게 파고들어도 되는 영역을 구분 지어 버립니다. 더구나 각각이 선택한 결과를 자기 책임으로 돌리는 성질도 있습니다.

주의·신념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개인을 존중하는 사회’를 목표로 한 우리는 어느새 각각의 사람들을 불투명한 막으로 구분 짓는 ‘모두 저마다의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모두 저마다’가 횡행하는 사회에서 대립이나 비판을 포함해 끈끈한 관계나 공감을 동반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은 어렵겠지요.

이러한 상황은 친구랑 있으면 오히려 피곤해진다는 알קות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앞서 다룬 <청소년연구소>의 조사에서는 ‘친구와 있을 때보다 혼자가 편하다.’ 문항에 대한 응답도 있습니다. 그 질문에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2002년 46%에서 2012년 71.7%까지 늘었습니다. 이제 친구 관계는 ‘허물없는’ 사이가 아닌 ‘모두 저마다’의 따뜻함으로 포장되어 서로를 배려하는 관계로 변한 것입니다.

높아지는 고립의 불안

공감을 동반하는 관계가 사라지면 사람들의 고독감도 커집니다. 2021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는 고독·고립대책담당실을 설치함과 동시에 고독·고립 대책 담당 장관도 임명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라는 배경도 있지만, 일본 사회에서 고독·고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사회가 되면 우리는 인간관계를 각자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얻을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앞서도 설명했듯이 유대관계를 맺어온 사람들과 멀어지는 불안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사람들에게 인간관계를 맺을 수 없을 것 같은 불안, 혹은 지금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을 키웁니다. 현대 사회는 많은 사람이 고립되는 것에 대한 불안을 안고 있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 저마다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고독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모두 저마다의 사회’에 있어서도 사람들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서로의 배려 속에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처럼 본심을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인연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심을 말할 수 없는 딜레마는 사람들의 고독감을 키웁니다. 누구도 ‘진짜 나’를 봐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 중에도 여러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는데도 그 어디에서도 ‘진짜 자기 자신’을 보이지 못한다며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게다가 그런 사람은 소수가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졸업 논문이 몇 편씩 나올 정도로 눈에 띄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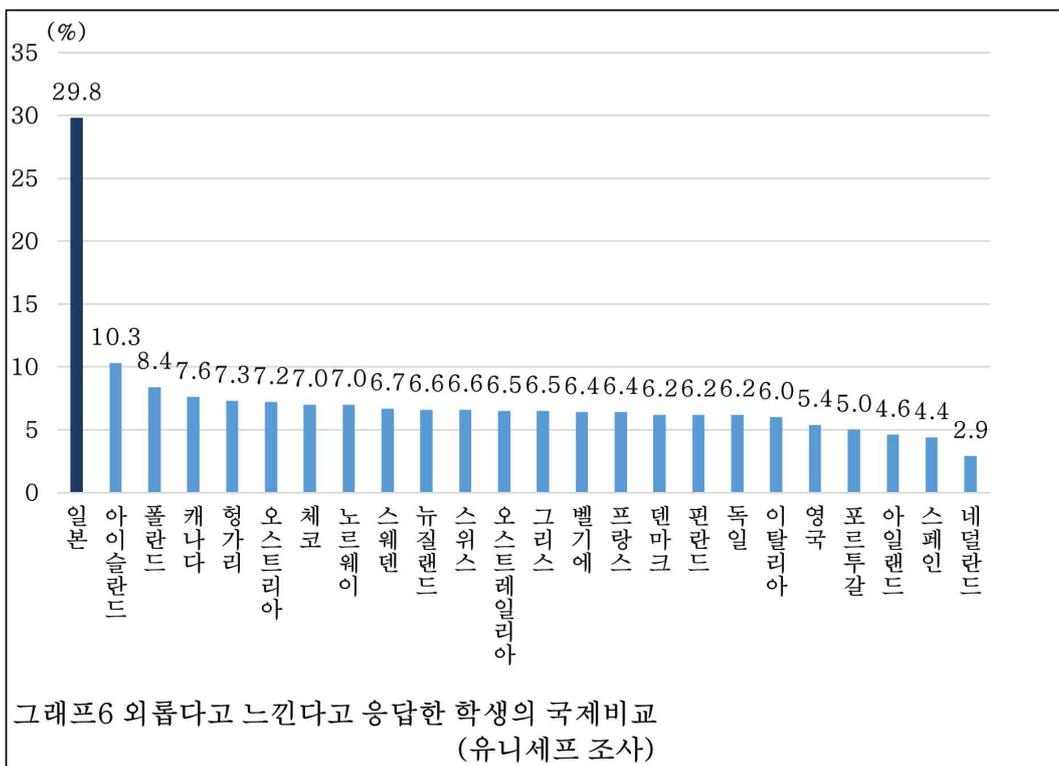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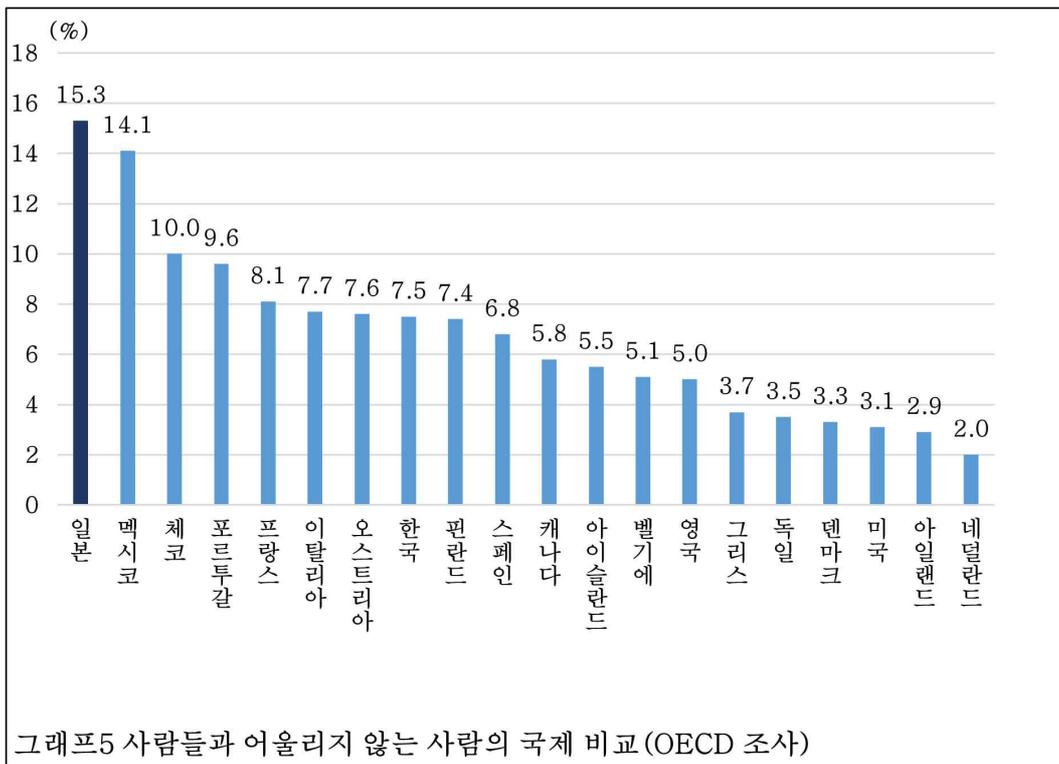
앞서 ‘친구와 있을 때보다 혼자가 편하다.’ 응답한 사람이 2012년의 조사에서는 71.7%나 된다고 서술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지 않으면 불안하다.’ 응답한 사람은 무려 84.6%나 됩니다. 즉, 지금의 젊은 세대는 친구와 있을 때보다 혼자가 편하지만,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지 않으면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는 ‘모두 저마다의 사회’에서 형성된 친구 관계에 대한 불안과 피로의 경향이 드러나 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 혹은 분위기를 헤치지 않기 위해 배려하는 관계성은 고도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쉽게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세대는 친구와 있는 것보다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람과 사람을 견고히 이어주었던 접촉제가 약해졌고 친구 관계라 하더라도 관계가 멀어지는 불안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고도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구사해서라도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외로운 일본

일본인의 고독감 크거나 고립되기 쉬운 경향은 국제사회와 비교한 조사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유명한 조사 결과는 1999년부터 2002년의 『세계 가치관 조사』의 결과를 기반으로 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조사 보고를 들 수 있습니다. 그 보고에 따르면 세계 20개 국가의 ‘친구, 동료, 그 외 종교, 스포츠, 문화 그룹의 사람과 전혀 혹은 거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프 5는 그 결과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사람과의 어울림이 없는 ‘고립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일본에 가장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적은 네덜란드의 2%와 비교하면 일본의 수치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명한 조사 결과는 2003년 유니세프가 OECD 국가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입니다(그래프 6). ‘외롭다고 느낀다.(I feel lonely)’ 문항에 ‘그렇다’ 응답한 비율은 주요국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일본의 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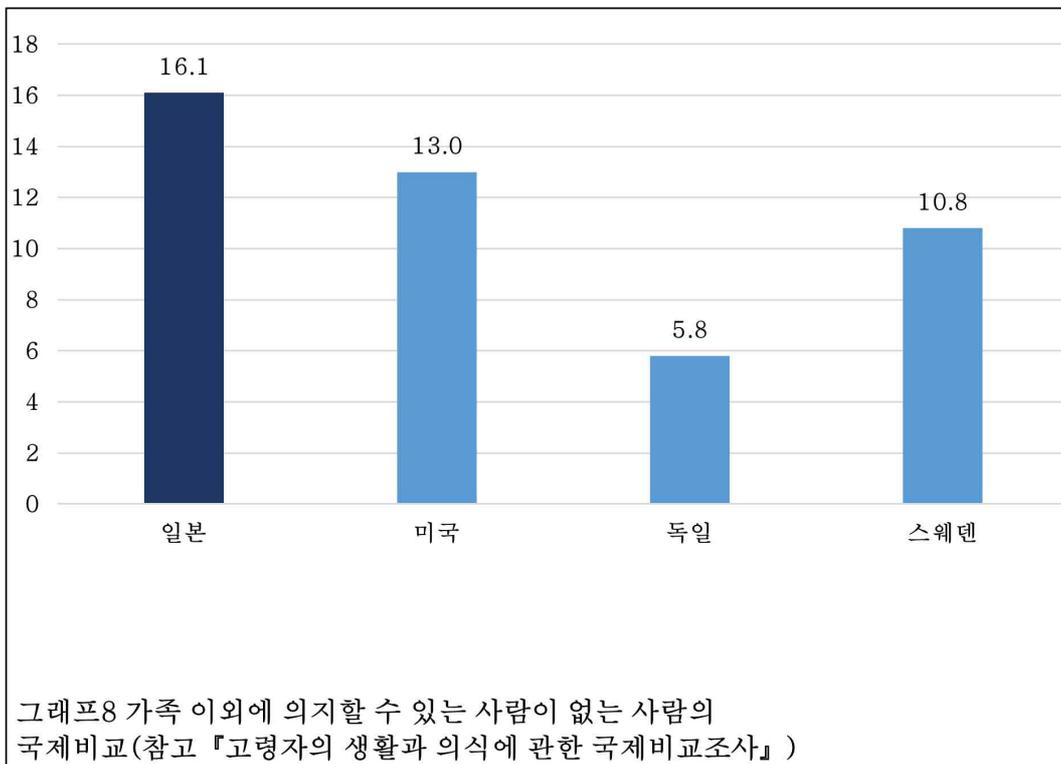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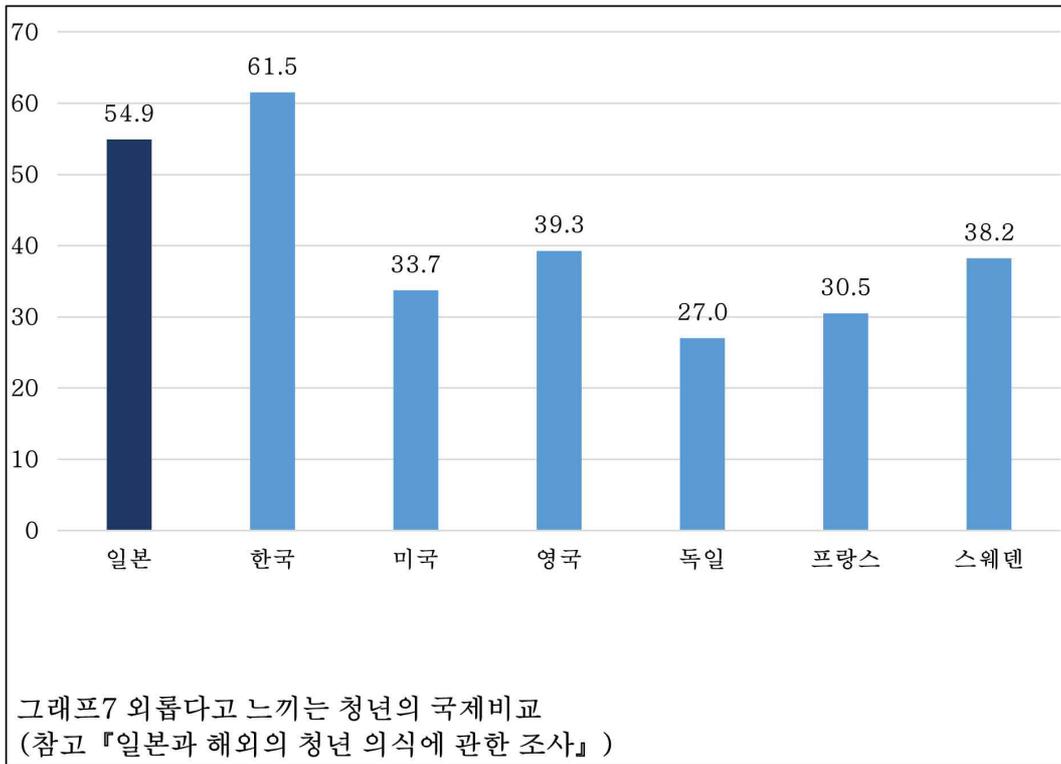
이들 데이터는 조금 오래된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최근의 조사 결과도 살펴봅시다. 그래프 7은 2013년에 실시한 『일본과 주요국의 젊은 세대 인식에 관한 조사』(일본 내각부)의 결과입니다. 이 조사는 일본을 비롯해 6개 국가에 사는 13세부터 29세 사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프에는 ‘외톨이이며 외롭다고 느낀 적이 있다.’ 문항에 대해 ‘있다’, ‘어느 쪽인가 하면 있다’ 응답 비율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일본의 젊은 세대 가운데 ‘외톨이이며 외롭다’ 느끼는 사람은 한국의 젊은 세대와 비교하면 적지만 상대적으로는 상당히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같은 문항에 ‘있다’, ‘어느 쪽인가 하면 있다’ 응답 비율은 높더라도 40% 미만에 그칩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에서는 그 수치가 각각 54.9%(일본), 61.5%(한국)로 매우 높습니다.

2018년에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는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상담하지 않는다’에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건 일본의 젊은 세대라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 19.9%, 즉 다섯 명 중의 한 명은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누구와도 상담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스웨덴의 6.9%와 비교해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고령자에게서도 비슷하게 보입니다. 내각부가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에 사는 60세 이상 사람을 대상으로 한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에 관한 국제 비교 조사』에서는 일본의 고령자 고립 경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 8은 같은 조사에서 동거가족 이외에 ‘의지하는 사람이 없음’ 응답 비율을 나타냅니다. 역시 다른 조사와 마찬가지로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의 고립 경향이 눈에 띕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음’에 응답한 사람은 일본만 15%를 넘습니다.



설문 조사의 국제 비교는 응답이 각국 문화적 배경에 강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결과에서 고립 경향과 강한 고독감이 보인다는 건 일본인은 고립되기 쉽고 고독감이 크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5. 우정이야기로 외로움을 해소하는 사회

친구와 다투면 우정은 회복되지 않는다

이처럼 살펴보면 우리의 친근한 관계는 몹시 서먹서먹해지고 외로운 관계로 변화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뜻하게 배려하고는 있지만 서로를 속속들이 드러내고 부딪히는 일은 그다지 없습니다. 저마다의 주장을 존중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서로의 영역에 들어서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고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립된 사람과 고독감을 품고 있는 사람은 적지 않습니다.

제 지도 학생으로부터 인상 깊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지도 학생끼리 독서회를 열고 특정 테마로 두 시간 가까이 논의했습니다. 그때 주제는 친구였습니다. 거기서 ‘지금의 학생들은 왜 친구와 싸우지 않는가?’ 하고 질문했더니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싸우면 관계를 회복할 기회가 없을 거 같아 무섭다.’

저는 이 대답에 놀랐습니다. 지금의 대학생은 친구와 한번 싸우면 회복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약한 관계성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있었던 학생들이 전원 동의했기 때문에 결코 소수의 의견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니 ‘친구와 있기보다 혼자가 편하다’ 응답한 사람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픽션 속 우정 이야기

그렇다면 ‘모두 저마다의 사회’에 담긴 답답함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하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의 스트레스 해소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터넷을 사용한 푸념, ‘자숙경찰⁸⁾’로 대표되는 ‘민폐 고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제4장, 제5장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또 하나는 미디어에 제시되는 ‘우정 이야기’의 소비입니다. 저는 198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까지 친구의 이미지가 어떻게 변했는가에 관해서 신문 기사를 통해 찾아봤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사히(朝日)신문, 요미우리(読売)신문 중에서 ‘친우(親友)⁹⁾’라는 말을 사용한 기사를 추출하여 그 안에서 ‘친우’라는 말을 사용한 용례의 변화를 찾아봤습니다. 그러자 흥미로운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 속에서의 ‘친우’라는 말의 사용 용례는 2000년대에 들어서자 확연히 바뀌어 갔습니다. 1990년대에 ‘친우’라는 말이 사용된 기사는 대부분 독자의 투고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생활의 다양한 장면에서 ‘친우’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자 ‘친우’라는 말을 사용한 투고는 줄어들었습니다. 대신해서 늘어난 것은 고등학교 야구선수들 사이에서 펼쳐지는 반연출화된 뜨거운 ‘우정 이야기’나 픽션 등장인물이 엮어가는 인간관계의 기사였습니다. 이와 함께 독자로부터의 투고 수 자체는 줄었지만, 내용은 친구의 좋은 점이나 중요성을 솔직히 적어낸 기사가 늘었습니다.

즉 친우의 좋은 점이나 우정의 훌륭함을 어필하는 기사가 늘어났습니다. 이들 기사에서는 인간성에서 비판, 푸념, 시샘, 이기심, 체념, 포기 등의 어두운 부분을 추출·제거한 ‘순수한 우정’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신문은 여론을 만들어냄과 동시에 세상을 질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2000년대 이후의 ‘우정 이야기’를 소재로 한 기사의 증가는 사람들이 ‘우정 이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8) 역주. 재해나 감염병의 확산에 대한 행정 지침에 따르지 않는 개인이나 상점을 대상으로 잘못된 정의감, 질투심, 불안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행동을 제어하거나 공격하는 일반 시민이나 그 행위·풍조를 가르치는 속어.

9) 역주. 매우 절친한 친구를 의미함.

외로움의 해소

‘모두 저마다의 사회’에서 만들어진 인간관계는 편하면서도 불안함이 따릅니다. ‘모두 저마다’라는 말의 따뜻함으로 포장된 배려하는 관계는 서로 배려하지 않으면 무너져 버리는 약한 관계이기도 합니다. 싸우더라도 회복할 기회가 없다며 두려워하는 학생의 말은 약해진 친구 관계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속속들이 드러내면서 때로는 싸움도 하면서 관계성을 키워나가는 모습이 없습니다.

굴레에서 벗어나 ‘모두 저마다’의 관계를 맺는 자유를 손에 넣은 우리는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다르다는 말로 배려하며 서로 얇은 벽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조금 외로운 관계성 속을 살아가는 우리는 미디어 속의 ‘우정 이야기’를 소비하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제3장 모두 저마다의 사회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1. 선택에 제한이 생기는 사회

앞장에서 ‘모두 저마다의 사회’에는 상대를 받아들이며 관계를 맺는 듯이 보여도 그 관계를 언제든지 차갑게 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저마다의 사회’가 주는 영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는 모두 저마다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사회라고 말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상황을 다루려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두 저마다의 사회’ 속 모순과 냉엄함을 다루겠습니다. 먼저 다음 모녀의 대화를 살펴봅시다.

어느 모녀의 이야기

“오늘 학교 안 가?”

“응, 오늘은 온라인 강의.”

모모에는 시무룩한 얼굴로 작은 화면에서 눈을 돌렸다.

“무슨 일 있어?”

“그냥, 어쩐지 온라인 수업은 재미가 없어. 난 강의실에서 수업받고 싶은데.”

실내에는 BGM처럼 1990년대에 유행했던 드라마 해설이 나온다.

“그럼 학교에 가면 되잖아.”

태평해 보이는 엄마를 결눈질로 보면서 모모에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이어 말했다.

“으응, 그렇긴 한데, 친구들은 다들 온라인으로 수업 들으니까. 나 혼자 학교에 가도 재미가 없어.”

“그럼 친구한테 같이 가자고 하는 게 어때?”

엄마는 어디까지나 태평하다. 드라마의 해설은 이제 막바지에 들어섰다.

“준코는 아르바이트하면서 중간중간 수업 듣는다고 하고 마사코는 이번 주 부모님네 가니까, 다들 개인 사정도 있고 어쩔 수 없어.”

“으음.”

친구의 진로 이야기

신지와 다카오는 대학 동기로 연극 동아리였다. 얼굴을 마주하는 건 2년 만이다.

“오랜만이네, 요즘 뭐 하고 지내?”

신지가 넥타이를 풀면서 높은 톤의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아, 그럭저럭 지내, 너는?”

“여전히 야근, 야근. 어쩔 수 없지, 이런 시기에 일이 있다는 것만 해도.”

다카오는 2년 전과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 조출하고 어쩐지 융통성 없는 분위기가 있다. 얼마 동안 떠든 후에 다카오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사실 나, 회사 그만두고 다시 한번 연극에 도전하려고.”

“진짜?”

신지의 목소리가 한층 더 크게 가게에 울렸다.

“응, 아무래도 이 길에 한 번 더 도전해보고 싶어서. 나이 생각해봐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고.”

이렇게 말하자 다카오는 후하고 크게 숨을 내쉬었다.

“뭐 이해는 하지만 힘들걸.”

신지는 다카오의 단정히 정리된 머리카락을 걸눈길로 바라보며 목소리를 조금 낮췄다.

“아 그래서 어느 정도 각오했어. 여러모로 받아들일 준비는 됐어.”

“그래, 잘해봐. 무대 있으면 연락하고.”

그렇게 한 달 뒤 신지는 같은 서클의 도오루와 한잔하고 있었다.

“그리고 보니 다카오 얘기 들었어? 그 녀석 회사 그만두고 연극 한대.”

변함없이 높은 목소리로 흥분한 듯 말했다.

“그래? 대단하네. 근데 그 녀석 꽤 좋은 회사 다니지 않았나?”

“응 ○○상사. 나라면 절대 안 그만들 텐데. 대단해. 인생 한 방이라든가 쉽지 않을 텐데.”

신지는 다카오의 말쑥한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래서 좀 말렸어?”

도오루는 진지함과 웃음기가 섞인 묘한 목소리를 말했다.

“그래도 사람마다 다르니까. 나는 그다지 할 말이 없었어. 너라면 말할 수 있겠어?”

“어렵긴 하지.”

어떻습니까. ‘모두 저마다의 사회’에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듯 보여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시로 든 대화를 나눈 경험이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맨 처음의 사례는 ‘모두 저마다’의 사정이 있어서 내가 생각한 대로 할 수 없다는 답답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한편 두 번째 사례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말하면 서로 각자의 선택에 서열이 생기는 냉정한 현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모두 저마다의 사회’가 가진 답답함과 냉정한 현실을 다루려 합니다.

먼저 ‘모두 저마다의 사회’가 가진 답답함부터 살펴봅시다.

2. 다양한 선택지의 함정

개인의 선택을 인정하는 사회의 포용력

제1장에서 ‘혼자’ 지내는 조건으로써 물적 풍요와 개인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을 들었습니다. 물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혼자 지낼 수 있는 환경 조건이 갖춰지고 이를 존중하는 사고방식이 퍼져가면서 우리는 혼자 지낼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니다. 사람과 엮이지 않는다는 선택지가 준비됨에 따라 우리 사회는 사람과의 관계를 ‘모두 저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생각하면 어떤 일에 대해서 ‘모두 저마다’의 원리를 적용하려면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은 다양한 선택지와 그 선택을 허용하는 관대함입니다. 전자는 주로 물적 조건, 후자는 심적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로도 쇼핑도 저마다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선택지가 필요합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모두가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면 자유로운 결정은 할 수 없습니다. ‘모두 저마다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선택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 하더라도 다양한 선택을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이 없다면 자유롭게 결정하는 일은 불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취업 활동을 생각해봅시다. 취업 활동에서는 복장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즉 취업준비생(취준생)은 규칙이라는 점에서만 본다면 다양한 옷차림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준생은 자유롭게 옷차림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취준생의 자유로운 복장을 사회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취준생의 복장의 다양성을 인정할 만큼 관용적이지 않은 사회에서는 취업 활동 시의 복장은 자유로운 선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자유롭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택지와 각각의 선택을 허용하는 사회의 포용력이 필요합니다.

자유로운 선택은 좋은 결과

자, 그렇다면 ‘모두 저마다’의 조건인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은 질문에 많은 사람은 ‘좋다’고 답합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좋은 현상이며 행동을 규제당하는 건 ‘개인의 존중’의 원리에 반합니다.

모두가 검색 정장을 입고 취업 준비를 하기보다 각자 좋아하는 옷을 고르는 편이 개성을 발휘할 수 있고 날씨에도 어울리는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감

색 정장을 입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만 그 복장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두 저마다의 자유로운 선택은 매우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모두가 자유로운 선택을 한다면 각자 원하는 것을 고르므로 가장 바람직하다는 견해입니다. 게다가 모두가 각자의 선택을 한다면 사회로부터 불합리한 압력을 받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으로부터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봅시다. 환경문제는 이제는 세계적인 관심사입니다. 개인이 행동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세계적인 기후변화는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모두 저마다’의 원리에 따라 개인이 자유롭게 행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봄비는 전철을 피해 차로 이동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두가 자동차로 이동한다면 온실가스가 더욱 발생하고 차량정체도 발생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환경문제는 더욱더 악화할 것입니다.

사회적 딜레마의 발생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자유롭게 행동한 결과로 사회의 손실이 커지는 현상을 ‘사회적 딜레마’라고 말합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무기 소지 여부를 개인의 선택에 맡긴 사회라고 가정해봅시다.

이와 같은 사회에서는 당연하게도 무기를 소지한 사람보다 소지하지 않은 사람의 조건이 불리해집니다. 그러므로 그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무기를 소지한다는 선택하기 쉬워집니다. 그러나 만약 모두가 같은 선택을 하고 무기를 소지한다면 사회의 치안은 불안정해집니다. 그리고 상대보다 우위에 서기 위한 무기의 개발도 활발해집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무기의 소지를 규제해야만 합니다.

‘모두 저마다’에 따른 자유로운 행동의 결과는 사회 전체에 의외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두 저마다’의 자유를 규제하는 규칙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러나 규칙을 어기는 일에 대한 반응은 때로는 과격해집니다. ‘모두 저마다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방어 반응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다루겠습니다.

3. 모두 저마다의 사회에서 생겨나는 답답함

혼자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소망

‘모두 저마다’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한 영향은 환경문제와 같이 큰 문제만 있는 건 아닙니다. 더 가까운 곳에도 빈번히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 서두에서 다뤘던 사례를 떠올려 보십시오.

모모에 씨는 대학교 강의실에서 수업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준코 씨, 마사코 씨는 온라인으로 수업받고 있어서 모모에 씨도 강의실에 가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친구한테 같이 가자고 하는 게 어때?’라고 권했지만, 모모에 씨는 다들 개인 사정이 있다며 포기합니다. ‘모두 저마다의 사회’에서 있을 법한 대응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모두 저마다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모두 저마다의 사회’에서는 저마다의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를 고르는 자유가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는 개인의 희망을 이룬다는 의미로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에는 혼자만으로는 이루지 못하는 일들도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가업을 이었으면 좋겠다.’, ‘친구들과 함께 강의실에서 수업받고 싶다.’ 같은 희망은 상대가 그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면 이룰 수 없습니다. 한편 ‘모두 저마다의 사회’에서는 상대에게 자신의 희망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상대에게 자신의 희망 강요는 상대의 의향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개인의 희망을 이룰 수 있는 사회는 상대와 멀어지는 안타까움을 느끼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강의실에서 수업받고 싶다는 모모에 씨의 희망은 온라인 강의의 도입으로 인해 이루기 어려워졌습니다.

조율이 필요한 시대

물적 풍요로움을 기반으로 성립하는 ‘모두 저마다의 사회’에서는 물품의 대차의 절차, 관리 방법의 결정이라는 조율에 필요한 수고를 줄입니다. 그러나 그 이점은 어디까지나 혼자서 무언가를 한다는 가정하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모두 저마다의 사회’에서 누군가와 무언가를 할 때는 오히려 이전보다도 조율에 필요한 수고가 더 듭니다.

아까 모모에 씨의 예시를 떠올려주십시오. 그때 대학 수업의 온라인화가 진행되지 않았더라면 모모에 씨의 희망은 비교적 수월하게 이뤄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온라인 강의가 도입되어 수업받는 방식이 다양해지면 친구와 함께 수업받기 위한 친구들과의 조율이 필요해집니다.

우리는 행동의 다양한 부분에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누군가와 함께 무언가를 할 때는 그만큼 여러 부분에서 조율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율은 매우 어렵고 상대가 거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율하기보다 조금 참고 지낸다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모두가 각자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대인관계에서는 약간의 인내와 외로움이 더해지는 모순이 생겼습니다. ‘모두 저마다의 사회’에는 이와 같은 답답함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타인의 영향

‘모두 저마다의 사회’에서는 상대의 의향은 아무래도 어쩔 수 없다는 답답함뿐만 아니라, 사회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마트폰이나 기존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한 커뮤니케이션이 좋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좋아하지는 않는다거나 솔직히 부담된다고 대답한 사람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의견을 가진 사람도 스마트폰을 떼어놓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제1장에서 확인했듯이 2018년에는 79.2%의 사람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46.1%의 사람이 기존의 휴대전화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두 기기 중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스마트폰 피로감’, ‘SNS 피로감’ 등 정보통신기기의 악영향을 나타낸 표현을 접하는 기회가 많습니다. 2020년 11월에는 『인스타 브레인¹⁰⁾』이라는 책이 출판되어 스마트폰의 신체에 대한 악영향이 지적되었습니다. 이 책은 출간 후 폭발적으로 판매가 늘어 대형 도서유통업체인 일본출판판매와 토한의 2021년 상반기 베스트셀러 순위 ‘신간 논픽션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모두 저마다의 사회’라면 스마트폰을 가지지 않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늘어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모두 저마다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소지에 대한 선택은 ‘모두 저마다’ 고를 수 있으며 강요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많은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연락을 취한다는 선택을 한 사회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스마트폰이 없다는 건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제2장에서도 다뤘듯이 우리들의 인간관계, 친구 관계는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이탈을 촉구하는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스마트폰을 갖는다는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사회’를 나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선택에 영향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가운데 이를 무시하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자유로운 선택을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타인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0) 역주. 스웨덴 작가인 안데르스 한센(Anders Hansen)의 도서로 원제는 『SKARMHJARNAN』이며 일본에서는 『スマホ脳』로 출판됨.

4. 선택으로 벌어지는 사회의 격차

선택의 조건과 결과는 평등하지 않다

앞선 이야기에서 개인이 자유로운 선택을 하면 세상에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거나 결과적으로 이것이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일도 있다는 이야기를 가볍게 다뤘습니다. 사회적 딜레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귀결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자유롭게 선택한 결과 격차가 벌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하는 수업의 내용 및 시간을 줄여서 학생의 자유 시간을 늘린다고 가정합시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모두 저마다’ 자유롭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가 고학력인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의 학력 차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고학력인 아이일수록 자유 시간을 공부에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초부터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업 내용이나 시간을 줄이는 ‘유토리 교육¹¹⁾’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해당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중반에 걸쳐서 편차치¹²⁾가 높은 고등학생과 편차치가 낮은 고등학생의 학습 시간 차이를 나타내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애초에 자유에 격차가 있다는 이야기는 그다지 낯설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유롭게 고른 결과는 평등이나 공평한 상황을 가져온다고 할 수 없습니다. ‘모두 저마다의 사회’에서는 선택에 관여하지 않고 결과의 책임을 개인에게 강요하는 냉정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결과물에 대해서 모두가 자유롭게 선택한 결과라고 말하면서도 마음 어딘가에는 세상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으며, 서열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 예시로 든 두 번째 사례의 신지 씨와 도오루 씨는 다카오씨의 선택이 그다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다카오

11) 역주. 여유 있는 교육을 의미하는 일본의 교육방침

12) 역주. 전국에서 학생·학교의 성적을 나타내는 지표로 높을수록 좋은 성적·학교를 의미함.

씨에게 전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는 그 개인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선택의 결과나 선택의 조건이 반드시 평등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결혼을 사례로 검토해봅시다.

사람들의 결혼 희망은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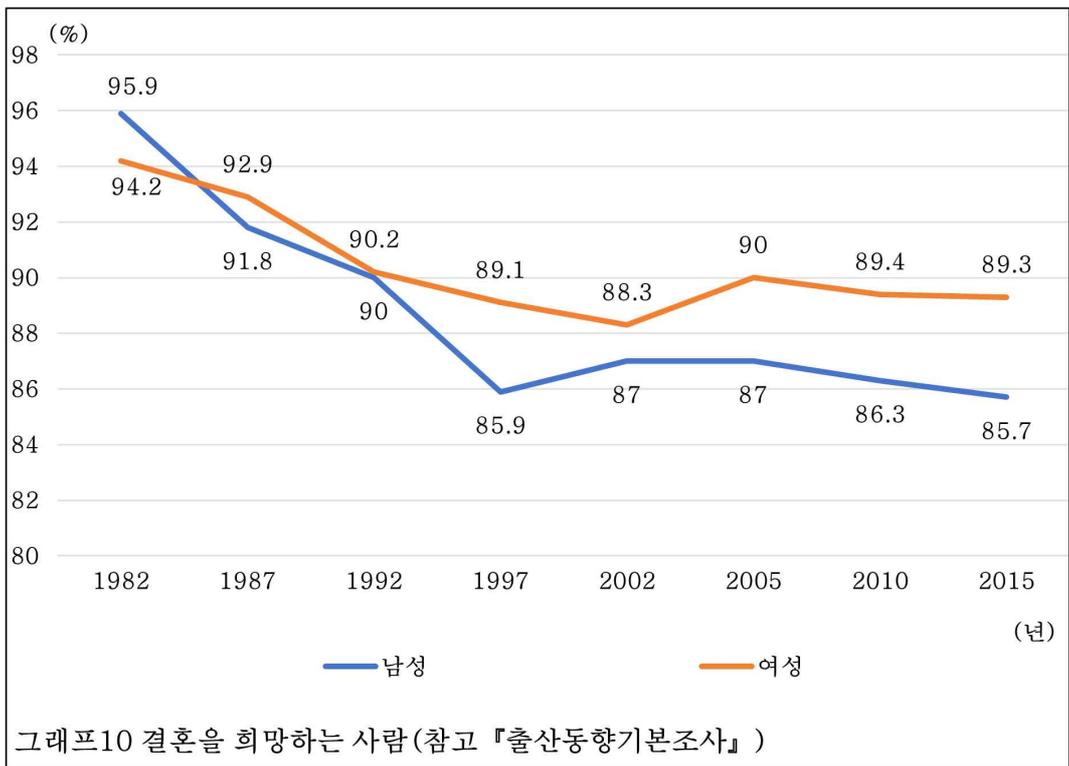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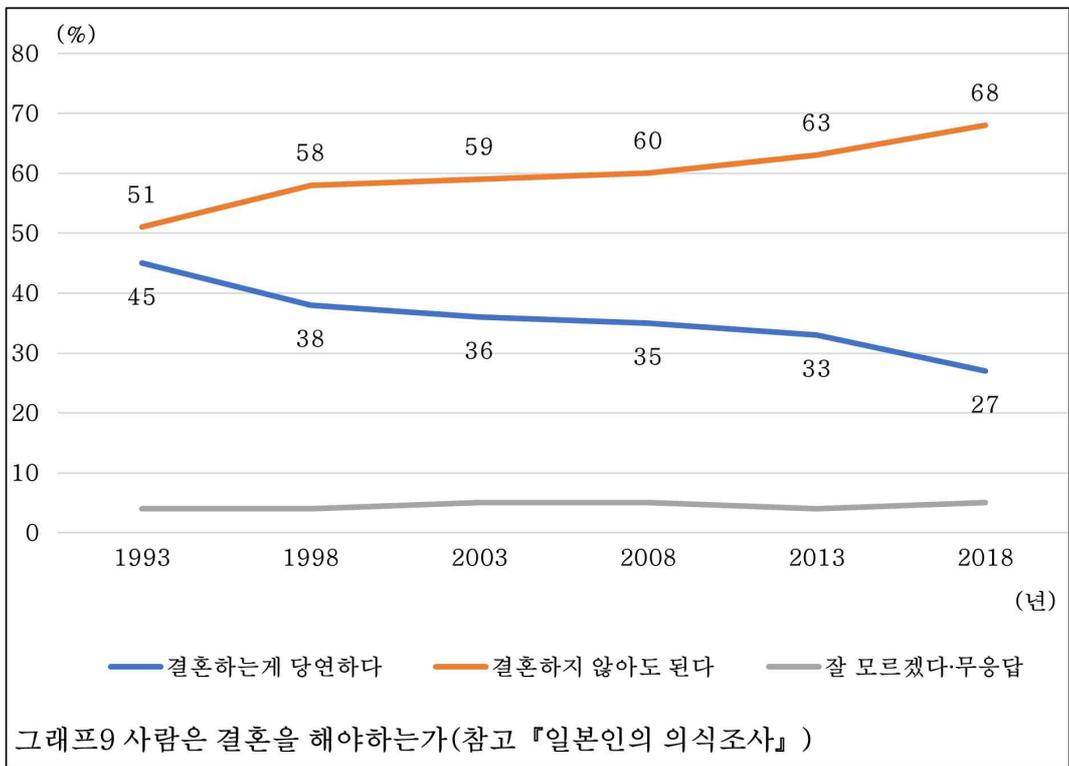
‘모두 저마다의 사회’에서는 인간관계로부터 멀어지는 것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결혼은 어른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개인의 자유’가 되었습니다. 그래프 9는 NHK방송문화연구소가 실시한 『일본인의 의식조사』에서 결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물어본 결과입니다.

그래프는 ‘당연히 결혼하여야 한다’, ‘반드시 결혼할 필요는 없다’, ‘모른다, 무응답’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1993년부터 2018년까지 당연히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줄었고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1993년에는 ‘하지 않아도 좋다’는 51%, ‘당연히 해야 한다’는 45%로 양쪽의 차이는 근소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이 되자 각각 68%와 27%로 그 차이가 상당히 벌어졌습니다. 여기서부터 결혼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여기는 규범은 최근 25년 동안 상당히 흔들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결혼을 희망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출산동향기본조사』에서 그 실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프 10은 ‘자신의 일생을 통틀어 고려했을 때 당신의 결혼에 대한 의향은 다음 중 어느 쪽에 해당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언젠가는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독신자 추이를 나타냅니다.

이 결과를 보면 사람들의 결혼 희망은 그다지 변화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1982년에는 남성 95.9%, 여성 94.2%였던 결혼 희망은 약간 줄어들었지만 2015년에도 남성 85.7%, 여성 89.3%입니다. 『일본인의 의식조사』의 조사 시기와 거의 비슷한 1992년과 2015년을 비교하면 여성은 겨우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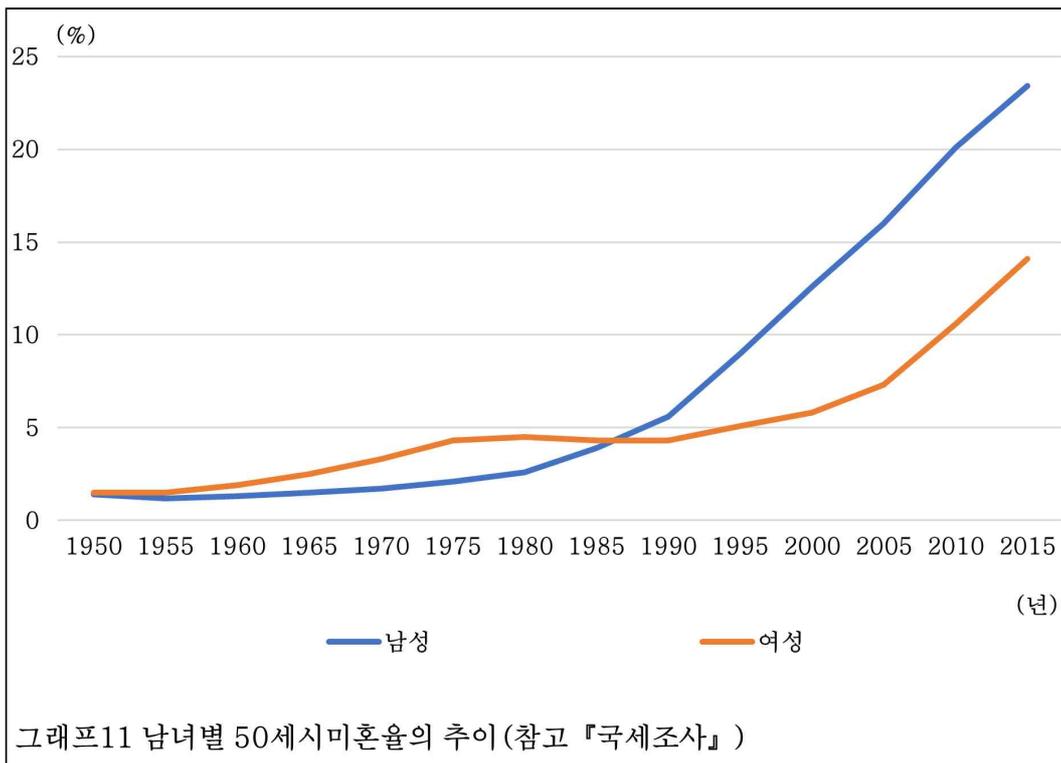


포인트, 남성은 4.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두 가지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많은 사람은 타인의 결혼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한편 자신은 언젠가 결혼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애미혼율로 보는 자유로운 선택의 결말

그렇다면 실제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결혼한 사람과 하지 않을 사람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50세 시점의 미혼율을 기준으로 검토되어왔습니다. 50세시미혼율은 2010년대 후반까지 ‘생애미혼율’이라 불리며 일본 사회의 미혼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다뤄왔습니다. 그 바탕에는 50세까지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그 후에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간 무례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의 옳고 그름은 우선 뒤로 미루고 50세시미혼율의 추이를 확인해봅시다.



그래프 11은 1950년부터 2015년까지의 50세시미혼율의 추이입니다. 이를 보면 50세시미혼율은 남녀 모두 1985년까지는 5%를 밑돌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즉 1980년대 중반까지는 일본은 남녀 모두가 결혼하는 사회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남성은 1985년을 경계로 미혼율이 급속도로 상승해서 2015년에는 23.4%에 달합니다. 여성은 약간 늦어졌지만 2005년부터 급속하게 늘어 2015년에 14.1%가 됩니다. 이제 일본은 남녀 모두가 결혼하는 사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 수치를 살펴봤는데 여기까지의 결과를 정리해봅시다.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결혼은 당연히 해야 한다는 의식이 급속도로 줄었습니다. 결혼은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소원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일본 사회에는 50세가 되어도 결혼 경험이 없는 사람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할 수 있는 사람과 결혼을 못 하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는 경제력이나 외모(체형 등)와 같은 실로 ‘전형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결혼을 ‘모두 저마다’의 선택이라고 보는 한편 많은 사람이 결혼을 희망하는 사회는 경제력이나 외모를 갖추지 못한 사람이 혼인이라는 선택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5. 불평등을 못 본 체하는 차가운 사회

고독·고립을 문제시 삼는 건 불필요한 도움이다

누군가와 어울리는 것도 어울리지 않는 것도 자유로운 ‘모두 저마다의 사회’에서는 인연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사람이나 누군가와 이어져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늘 존재 합니다. 제2장에서는 일본 사회에 고립된 사람이나 고독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더욱이 일본 사회는 고독·고립대책 담당 장관이 임명되었듯이 고립이나 고독을 문제시하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와 어울리는가, 어울리지 않는가는 사람마다 자유롭게 선택이라서 정부가 하는 일들은 불필요한 참견이라는 반대나 고독·고립에도 좋은 부분이 있으며 과하게 문제시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반대의견이 돌아옵니다. 우에노 치즈코(上野千鶴子) 씨는 베스트 셀러가 된 저서 『싱글, 행복하면 그만이다¹³⁾』에서 독신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외로우시죠?’라는 말을 건네는 것은 큰 실례라고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업적을 일군 사람이 집필하는 고독·고립 주장 연설

물론 스스로 준비해서 독신을 만끽하고 있는 사람에게 ‘외로우시죠?’라고 말을 거는 것은 큰 실례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모두 저마다 자유롭게 살아가는 방식에 반하는 겁니다.

또한, 혼자가 되는 자유를 손에 넣으며 우리가 얻은 것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집단에서 떨어져 혼자가 되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거나 혼자 조용히 책을 읽으며 다양한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혼자가 되는 자유가 없었다면 이제까지의 과학적 진보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는 우에노 씨의 이야기도 고독이나 고립을 권장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사회와의 접점을 확보한 끝에 독신생활을 즐기고 있는 사람으로 가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에노 씨가 ‘외로우시죠?’라고 말을 거는 것은 큰 실례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스스로 준비하여 선택해 ‘독신’이 된 사람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사람이 외톨이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에노 씨는 저서에서 ‘혼자 지낼 때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도 달인이다.’(『싱글, 행복하면 그만이다¹⁴⁾』)라고 말합니다.

고독·고립을 권장하는 분들은 애초에 일의 자유도가 높으며 탁월한 업적을 이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츠키 히로유키(五木寛之, 작가) 씨, 히로카네 켄시(弘兼憲史, 만화가) 씨, 이주인 시즈카(伊集院静, 작가) 씨, 시모주 아키

13) 역주. 한국어 번역서 제목. 원제 『おひとりさまの老後』.

14) 역주. 원서 『おひとりさまの老後』 page 103.

코(下重暁子, 캐스터) 씨 등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우에노 씨도 도쿄대학의 명예교수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고립·고독은 어디에도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사회에도 우두커니 방치된 상태의 고립이나 누구도 자신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듯한 생각이 들면서 생겨나는 고독감과 다릅니다. 우에노 씨도 최근에는 이러한 점을 의식하고 있는 듯하며 2021년에 출판한 서적에서는 ‘진짜 문제는 (생략) 살아가고 있는 사이의 고립’(『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하다¹⁵⁾』)이라며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문제인 걸까요.

가성비화 되는 인간관계

누군가와 어울리는 것도 자유, 어울리지 않는 것도 자유이며 각자의 선택이라 해도 많은 사람은 유대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고독·고립을 바라지는 사람은 그다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인지과학 연구에서는 무리에서 멀어지는 고통은 신체적인 고통과 비슷한 반응을 뇌에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편 인간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을 개인 사정로 받아들이는 사회에서 사전에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기란 쉽지 않습니다. 고독이 싫은 사람은 관계를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의중의 상대를 붙잡아둘 수는 없습니다. 의중의 상대를 붙잡을 수 있는 건 붙잡을만한 매력이나 자원을 갖춘 사람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구조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 상대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사회에서는 마찬가지로 다양한 선택지를 가진 상대로부터 자신이 선택받아야 하는 사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에서는 상대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원이 풍족한 사람일수록 풍부한 관계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상대를 만족시키는 자원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다지 관심을 받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15) 역주. 한국어 번역서 제목. 원제 『在宅ひとり死のススメ』. 원서 page 101.

최근의 대학생 중에서는 자기 친구 관계를 가성비로 고른다고 당당히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비용에 맞는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만 사귀는다는 의미입니다. 매우 합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자신에게 있어 좋은 요소를 가진 사람을 선택한다는 원리를 철저히 지킨다면 ‘가성비’라는 말에 다다른 것도 수궁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의 가성비가 진행된 사회에서는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비용으로 간주 될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누군가는 비용으로써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모두 저마다의 사회의 흑독함

저는 도쿄 근교에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2016년에 실시된 『수도권 주민의 일·생활과 지역 사회에 관한 조사』 [대표:와세다(早稲田)대학 하시모토 겐지(橋本健二)]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립되기 쉬운 사람의 특성을 연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평상시 친하게 지내고 있거나 의지하고 있는 가족·친족’, ‘친구·지인’이 0명인 사람을 고립자로 정의하고 어떠한 속성이 고립과 관련이 깊은지를 분석했습니다.

그러자 경제력이 없는 사람, 학력이 낮은 사람, 결혼하지 않은 사람, 건강하지 않은 사람과 같은 이른바 일반적으로 좋은 요소를 갖지 못한 사람이 고립되기 쉽다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의 조사연구에서도 대부분 비슷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앞서 결혼 데이터와 함께 생각해 보면 사회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인연으로부터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한편으로 고립되는 것조차도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사회에서 실제로 고립되어있는 사람에 대한 시선이 따뜻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고립되는 것도 결혼하지 않는 것도 ‘모두 저마다’의 선택의 결과라는 이유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고립된 사람이나 결혼을 못 한 사람은 상대의 지금 비용에 걸맞은 퍼포먼스를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가성비 원리 이야기입니다.

‘모두 저마다의 사회’는 모두가 각자 선택한 결과로써 생기는 격차에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어난 결과의 책임을 당사자의 선택으로 돌리며 격

차를 정당화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모두 저마다’ 선택한 결과라고 보는 사고 방식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태어난 집에 의해 개인이 도달하는 학력이나 직업적 위치가 다른 것은 학력이나 직업의 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사회계층연구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의 성과에서도 밝혀졌습니다.

애초에 사람들이 모든 국면에서 정말로 선택하고 있는가조차 의심스럽고 선택 그 자체도 환경에 상당히 좌우됩니다. 제 학생의 이야기만 해서 송구스럽지만, 지방에서 온 학생은 중학교 입학시험¹⁶⁾이라는 선택지가 없었다고 자주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선택이라고 말하면서도 마음 어딘가에서 그 선택에 대한 바람직한 결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는 서열로 넘쳐나고 있고 사람들의 결정에는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에서 각자가 고른 결과는 결코 평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양한 결정에 대해서 개인의 선택으로 간주하고 그다지 관여하려 하지 않습니다. 언뜻 보면 관대한 ‘모두 저마다의 사회’는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못 본 척하는 차가운 사회이기도 합니다.

16) 역주. 사립중학교나 국공립의 중고일관교의 입학시험을 의미함.

참고문헌

안데르스 한센(Anders Hansen)(2020) 『인스타 브레인』 동양북스
우에노 치즈코(上野千鶴子)(2011) 『싱글, 행복하면 그만이다』 이텐슬리벨
우에노 치즈코(上野千鶴子)(2022)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하다』 동양북스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2019) 『자유론』 웅진지식하우스

국립국어원 <https://www.korean.go.kr/> (2022년 11월 28일)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index.do> (2022년 11월 27일)
네이버 사전 <https://ja.dict.naver.com/#/main> (2022년 12월 2일)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2022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2022년 11월 19일)
통계청 <https://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2022년 10월 31일)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https://www.kmdb.or.kr/main> (2022년 11월 22일)
YES24.COM <http://www.yes24.com/main/default.aspx> (2022년 11월 28일)
KAKEN研究課題をさがす <https://kaken.nii.ac.jp/ja/index/> (2022년 11월 20일)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https://www.ipss.go.jp/> (2022년 11월 20일)
中学受験アンサー <https://www.studyup.jp/contents/> (2022년 11월 28일)
総務省統計局 <https://www.stat.go.jp/index.html> (2022년 11월 28일)
내閣府 <https://www.cao.go.jp/> (2022년 10월 31일)
法務省 <https://www.moj.go.jp/index.html> (2022년 11월 20일)
amazon.co.jp https://www.amazon.co.jp/ref=nav_logo (2022년 11월 27일)
researchmap <https://researchmap.jp/> (2022년 11월 19일)
weblio <https://ejje.weblio.jp/> (2022년 12월 2일)

日本語抄録

本書は、日本の社会学者であり早稲田大学文学学術院教授の石田光規の著書で、日本の社会的問題となっている孤独・孤立、人間関係の変化と寂しさについて書かれている。

第一章は「人それぞれ」が成立する社会の条件というタイトルで、個人化が進んだ社会を説明している。個人化が進行した背景、一人で過ごすことを選択した人々のライフスタイル、相手を尊重するため、あるいは相手を否定しないための対話の技法について説明し、社会的孤立が形成される背景を述べている。

第二章は「人それぞれ」とは言うものの、その言葉の中に隠れている本音は言えない現代の日本社会を、友達との会話、ある大学の授業中の討論を例に説明している。現代の若者は相手を否定せず、対立を避けるため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方法を使っている。友達と争うと関係を修復できないかもしれないと恐れる若者の寂しさについて述べている。

第三章では「人それぞれ」という表現では解決できない問題として親子の会話、友達の進路に関する問題を例に挙げている。個人の多様な選択を尊重する社会において個人の自由は保障されているが、自由な選択の中で格差が広がり、その結果「社会的ジレンマ」が発生する。「人それぞれ」という言葉で互いの選択を尊重しているが「人それぞれ」の選択は本当に平等な選択なのか。社会の格差が広がり、不平等が発生し、人々は寂しさと孤独を抱えて生きている。「人それぞれの社会」が生み出した厳しい現実を伝える。